

(붙임)

사진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조선왕실의 현판 II』>



### 의열사기 현판

義烈祠記 懸板

1582년(선조 15), 나무, 36.0×150.0cm

1581년(선조 14) 4월에 류성룡柳成龍(1542~1607년)이 지은 부여 의열사義烈祠의 기문記文을 새긴 현판이다. 류성룡의 벗이던 홍가신洪可臣(1541~1615년)이 1575년(선조 8)에 부여의 현령으로 부임하여 백제 의자왕 때의 충신인 성충成忠, 홍수興首, 계백階伯과 고려 공민왕 때의 충신인 이존오李存吾를 모시기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판의 뒷면에 ‘만력 10년 임오년 2월에 걸다. 생원 한호가 썼다[萬曆十年壬午二月 日懸 生員 韓濩筆書]’ 라는 음각이 있어, 1582년(선조 15)에 사자관寫字官이자 서예가로 잘 알려진 석봉石峯 한호韓濩(1543~1605년)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 돈의문 현판

敦義門 懸板

1711년(숙종 36) 제작, 1749년(영조 25) 이후 보수, 나무, 115.5×308.0cm,

조선 시대 한양도성의 사대문四大門 중 서문西門에 해당하는 돈의문敦義門의 현판이다. 돈의문은 1396년(태조 5)에 건립되었는데 ‘의를 도탑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오행사상에 따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중 ‘의’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판의 뒷면에는 ‘신묘년(1711) 11월 15일 유학幼學 신臣 조운덕曹潤德(1677~1760년)이 전교를 받들어 쓰다’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다. 또한, ‘기사년 2월 18일 영건소營建所에서 고쳐 만들다’라는 보수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기사년은 1749년(영조 25), 1809년(순조 9), 1869년(고종 6) 중에서 한 해로 추정된다.



**망묘루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심정을 기록한 현판**

走筆寫懷題望廟樓 懸板

1745년(영조 21), 나무, 64.3×105.1cm

영조가 1745년(영조 21) 4월 7일에 종묘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을 살펴보고, 다음 날의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왕세자에게 대신 지내도록 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시와 김재로金在魯(1682~1759년)의 글을 기록한 현판이다. 특히 이 현판은 여단이문이 있는 매우 드문 형태인데, 평상시에 문을 닫아 왕이 지은 시를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직단의 재전에서 지은 시를 새긴 현판

社壇齋殿作 懸板

1742년(영조 18), 나무, 61.5×114.5cm

1742년(영조 18) 8월 영조가 사직단에서 추향대제秋享大祭를 지내며 지은 시와 그 배경을 기록한 현판이다. 1702년(숙종 28) 2월 초2일 숙종이 지낸 춘향春享과 영조 자신이 지낸 8월 초2일 추향秋享의 날짜가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시 한 수를 읊고 현판으로 만들어 재실(안향청)의 벽에 걸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선을 개국한 임신년을 추억하며 지은 시를 새긴 현판

追憶壬申開國 懸板

1754년(영조 30), 나무, 36.4×73.6cm

1753년(영조 29)에 영조가 건원릉健元陵을 방문하면서 조선이 건국되었던 임신년(1392)을 추억하며 지은 시를 새긴 현판이다. 『춘관통고春官通考』(1788년) 「길례吉禮」의 건원릉 항목에 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조가 계유년(1753) 8월 능을 참배하였을 때 어필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현판 끝부분에 ‘이듬해 가을에 쓰다[翌年秋題]’라는 간기가 있으므로, 건원릉을 방문하여 시를 지은 다음해에 현판을 만들어 건원릉에 걸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능의 재관에게 내린 칙유를 새긴 현판

飭諭陵司齋官 懸板

1749년(영조 25), 나무, 46.0×141.0cm

영조가 1749년(영조 25) 5월 초순에 각 능의 재관齋官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내린 칙유飭諭를 새긴 현판으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이철보李喆輔(1691~1770년)가 글씨를 썼다. 영조는 제향 절차나 능의 수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현판에 새겨 걸도록 하였는데, 이 현판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재랑齋郎(재관)은 입직할 때 심신을 깨끗이 할 것[청재淸齋], 둘째, 능사陵司는 제기를 씻고 보관하는 일을 잘 관리하고 아랫사람에게 일임하지 말 것, 셋째, 능사와 전사관典祀官은 진설陳設(음식을 차림)과 철찬撤饌(음식을 거둠)을 행하고 제물祭物을 살피는 데 실수가 없도록 할 것, 넷째, 실수가 생기면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여 제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능침을 관리하는 수복守僕 및 수호군守護軍을 구휼하라는 내용이다.



‘50년이 지나서 다시 예전에 살던 집에 임하다’ 를 새긴 현판

五十年來復臨舊第 懸板

1770년(영조 46), 나무, 48.5×145.8cm

영조가 1770년(영조 46)에 잠저였던 창의궁을 돌아보고 감회를 기록한 현판이다. 초서체의 크고 유려한 필체로 ‘50년이 지나서 다시 예전에 살던 집에 임하다[五十年來復臨舊第]’ 라는 뜻의 여덟 글자와 ‘칠십칠세七十七歲’ 가 작게 새겨져 있다.





북한산 행궁에서 회포를 기록한 현판

北漢行宮紀懷 懸板

1760년(영조 36), 나무, 63.5×105.7cm

영조가 1760년(영조 36) 8월에 북한산의 행궁에 거둥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는 감회를 기록한 현판이다. 영조는 1712년(숙종 38) 연잉군 시절에 도총부의 총관으로서 숙종을 모시고 북한산성 행궁에 행차한 적이 있다. 이후 49년 만에 다시 행궁에 와서 임진년(1712)에 숙종이 앉았던 깔개 등의 물건들과 숙종의 어제시 여섯 수를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연청좌목 현판

耆社椽廳座目 懸板

1891년(고종 28), 나무, 47.5×77.4cm

기로소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의 명단을 새긴 현판이다. 1891년(고종 28) 8월에 만든 것으로 6인의 직책과 이름, 생년, 자字, 본관이 서열대로 새겨져 있다.



고문헌 국역총서 『국역 금보개조도감의례』



**명종 상시호 금보(明宗 上諡號 金寶)**

1705년(숙종31)

10.1×10.1×7.1cm

명종(明宗, 재위 1545~1567년)의 금보는 본래 1568년(선조 1)에 ‘명종(明宗)’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리면서 제작되었고, 영녕전(永寧殿) 제11실에 보관되어 오다가 전쟁으로 소실되었다. 숙종(肅宗, 재위 1674~1720년)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1705년(숙종 31)에 금보개조도감을 설치하여 명종금보를 다시 제작하면서 종묘와 영녕전 각 실의 보수(寶綬), 보록(寶錄) 등의 구성품을 보완하게 하였다. 『금보개조도감의궤』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금보개조도감의궤』에 수록된 명종 금보(金寶) 도식(좌), 어보를 보관하는 외함(가운데), 내함(우)